

桂鎔默研究試論

蔡 堦*

- | | |
|-----------------|-------------|
| I. 資料整理와 評價의 摸索 | 2. 中期時代 |
| II. 作品論 | 3. 後期時代 |
| 1. 初期時代 | III. 文學의 特色 |

I. 資料整理와 評價의 摸索

洗鍊된 技巧과 훈훈한 人情味를 지니는 作品世界로 적지 않은 文學愛好家들에 의해 아낌받고 있는 桂鎔默(1904~1961)에 대한 本格的인 考究는 무슨 까닭에서인지, 不振한 狀態에 놓여 있는 듯하다. 個別的인 作家研究만을 위한 著書에서도 桂鎔默에 대한 項目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더러 史類 책 속에 斷片的으로 言及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고작인데(白鐵:「朝鮮新文學思潮史」(現代篇), pp. 307~310, 金宇鍾:「韓國現代小說史」, p. 292), 이는 現代小說을 概觀하는 자리에서 그를 完全히 無視하지 않았다 뿐이지, 어느 것도 제대로의 格式을 갖춘 研究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가운데서도, 유독 <白痴 아다다>만은 發表 당시로부터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數 많은 사람들에 의해 膾炙되고 있음을 본다. <白痴 아다다>가 名實 共に 뛰어난 作品이라 하더라도, 餘他의 作品이라거나, 作家 자신에 대한 淸查는 거의 度外視된 채, 한 作品만이 全體를 壓倒한 듯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온당한 일 같지 않다. 이러한 現象은 既히 名聲을 얻고 있는 有名(?) 作家라든가, 特定 作品만이 되풀이 言及되어온 지금까지의 폐단을 端的으로 나타내 보이는 한 例임에 틀림없다. 近者에 이르러, 碩士論文의 題마로 選定되거나, 講義案의 對象으로 끌려지는 등의 事例가 더러 있기도 하지만, 아직도 桂鎔默이나 그의 文學을 本格的으로 研究한 業績은 많지 않은 것 같다.

桂鎔默은 3卷의 短篇小說集——「屏風에 그린 닭이」(解放 뒤에 「青春圖」라고 改題되어 發行되었다), 「白痴 아다다」 및 「별을 헨다」와, 한 卷의 隨筆集——「象牙塔」을 남겨 놓고 있다. 이들

* 淑明女子大學校 教授, 國文學

短篇小說集에 수록되어 있는 作品만 하더라도 25篇이나 된다. 이 外에 各種 誌紙에 실려 있는 作品까지를 모을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없는 일이겠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桂鎔默文學의 特色을 抽出하는 作業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다. 한편, 그의 人間的인 여러 面을 살필 수 있는 記錄物로는 「象牙塔」 以外에도 趙演鉉의 「作家修業」(1951. 11. 7, 首都文化社) 속의 「내가 小說家가 되기까지」 등이 다시 없이 좋은 補助資料 구실을 해주고 있다.

이제, 筆者는 上記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資料를 바탕으로 하여 桂鎔默論을 엮어보려 하거니와, 體裁上的 制約 때문에 不得已 試論의인 것에 그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Ⅱ. 作 品 論

桂鎔默文學의 背景이 되는 人的 狀況중, 특히 내세울만한 事項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즉 平北 宣川의 土豪인 儒敎 집안에 태어난 桂鎔默이가 漢文을 배우다 말고, 新學問과 新文學에 대한 憧憬을 억누를 길 없어, 두 번이나 無斷히 上京했으나, 그때마다 頑固한 祖父에 의해 故郷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뒤 거의 獨學으로 世界 名作을 讀破한 底力을 바탕으로 詩와 小說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25年 5月, 朝鮮文壇 제8호 誌上에 發表된 〈相換〉으로 作家로서 데뷔하게 된 그는 日本 留學을 위해 잠시 붓을 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故郷집의 破産으로 中途에 歸國한 그는 구차한 生活 가운데서도 創作生活을 계속해 나갔다. 이 무렵부터의 그의 行路는 몇 가지 記錄物 속에 斷片的으로 述懷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려운 生活의 連續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 桂鎔默의 略歷이나 人生行路에서 우리는 特記할만한 일은 별로 發見하지 못한 셈이다. 그렇다면, 桂鎔默文學에 대한 評價方法은 自然히 그가 活動한 時期를 알맞게 區分한 다음, 各 時期 別 作品을 綿密히 檢討하는 方法을 取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時期別 區分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였다. 즉

初期時代——1925~1934

中期時代——1935~1945

後期時代——1946~晩年

1. 初期時代

作家 桂鎔默의 初期時代는 〈相換〉으로부터 시작된다. 처녀작인 〈相換〉은 宣川의 自我青年이란 假名으로 投稿되어 當選된 作品이다. 作者 자신은 相當한 意慾을 가지고 쓴 作品인 듯하지만, 造作된 問題意識이 지나치게 앞세워진 나머지, 稚氣에 가득 차 있음을 본다. 金弘得의 아내를 強姦한 뒤, 歸家한 昌洙는 非正常的인 言動을 하므로써, 아내의 애를 태운다. 昌洙는 그